전국 성악인들의 화려한 경연…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 성료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권경민씨 대학일반부 1위 · 대상 영예

제1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가 지난 5일 전국 100여명 성악인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 4일 예심과 5일 본선을 걸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권경민씨가 대학일반부 1위와 함께 대망의 대상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날 권씨는 대상 수상과 함께 상금 7백만원을 획득했다. 대상 외에 유초등부 1위에는 조민준(전주 용소초), 중등부 1위 한마음(남천중 다도분교), 고등부는 1위 없는 공동 2위에 김기돈(경기도 양평), 조윤지(광주예고)가 각각 차지했다. 여기에 아마추어 일반부에 정경숙(전남 광주), 합창부에 부산 금정 여성합창단이 각각 1위를 수상했다.

제1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가 지난 5일 전국 100여명 성악인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콩쿠르는 (주)Space P가 주최하고 순창군과 호남오페라단이 후원해 총 6부문에 걸쳐 총 100여명의 성악인이 참가했다.

본선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각 부문 입상자들은 지난 5일 저녁 7시 30분에 순창 향토회관에 모여 대망의 대상자를 가리는 경연을 펼쳤다.

유초등부부터 아마추어 일반부까지 각 부문 1위가 펼치는 성악의 향연에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 순창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경연에 전국의 성악 동호인부터 순창군민 등 많은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해 성악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공연장을 찾은 A모씨는 "성악 공연을 한다고 하길래 한 번 와봤다"면서 "순창에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공연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 비만예방의 날 맞아 고산미소시장 일원서 캠페인

완주군이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섰다.

완주군 보건소는 '제10회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고산미소시장 일원에서 '비만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걷기, 일상이 운동이 되다'를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부스를 설치해 복부둘레 측정, 비만조끼 체험을 통한 운동·영양상담,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실천 홍보활동이 전개됐다.

또한 음주고글을 이용한 가상음주 체험, 흡연고글을 이용한 가상흡연 체험,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비만예방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완주=이중복 기자

남원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훈련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7일과 8일 2일간에 걸쳐 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경감 이하 총 26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례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사격술과 총기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탄약 유출사태와 부정사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및 사격 안전교육과 감찰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함현배 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전 경찰관들이 총기사용 요건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제1회 수어문화제 개최

남원시는 지난 5일 수어에 대한 이해와 청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남원 예촌에서 농아인,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제1회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아인과 건청인이 함께 어우러져 수어 경연대회, 수어 체험 및 농아인 문화체험, 장애 인식개선 부스, 수어통역 및 생활문제 상담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8개팀의 농아인 및 건청인이 참석해 노래, 댄스, 연극 등에서 다양한 방법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제1회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통해 농아인과 건청인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병원, 환자들에게 사랑, 나눔 행복 실천

익산병원은 최근 병원 로비에서 1004 day(천사데이) 기념행사를 가지고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오전부터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각병동에서는

발마사지·손발톱 관리를 실시했으며 1층 로비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결핵상담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천사데이는 전국 병원 간호사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심어주고 간호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병원간호사회가 정한 날이다.

익산병원 간호부는 매년 1004day행사를 개최하고 간호사들이 환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간호정신을 되새겨 더 친절하고 진심어린 서비스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무주군의회-광진구의회, 자매결연 체결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지난 5일 서울시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양 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무주군의회와 광진구의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의회에서는 연초부터 기초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무주군의회를 사전 방문하기도 했다. 무주군의회에서는 지난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에 광진구의회를 공식초청하며 양 의회 간 전체의원 상견례 및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무주군의회와 광진구의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 갖고 의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 등 폭 넓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교류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등에 대해 협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송열 의장은 "오늘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기초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이번 자매결연을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

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는 가정·성폭력 상담소가 없는 고창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유관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여성폭력, 아동·노인학대 피해자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창군 모양성제 축제장에서 고창경찰(5명),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상담사(3명),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3명)·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4명)이 함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여성폭력, 아동·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여성폭력, 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발생시 행동지침에 대하여 현장 교육을 시킴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긴급구조하고 보호하며 2차 사고예방 및 아동·노인학대 피해를 사전 차단 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분석, 재발위험?우려 가정을 선정하여 1366, 아동·노인학대 관련 전문 상담사와 함께 가정방문 상담도 진행 중으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망성면, 제13회 망성면민 화합의 날 개최

망성면은 최근 망성초등학교에서 제13회 망성면민 화합의 날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립풍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준태 전 체육회장과 김재관 전 체육회 재무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면민화합을 위해 노력한 이동호 전 조합장, 김기철 현 이장단협의회 총무에게 시장상이 수여됐으며 윷놀이,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주영석 망성면장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다"며 "망성면민이 하나 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알 림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전주매일신문사, 접수마감: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